

새로나온 책

▲경주 남산=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 정일근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부처를 빈 절터에 앉아 찻물을 끓이며/ 찻잔 속의 달이 익길 기다리는 저녁/산은 광배같은 둥근 경주 남산...어두워질수록 노랗게 익는 달 보라/찻잔 가득 고소하게 익는 달을 보라 - '달' - . 정시인은 경주를 '달' 뿐 아니라 가뭄빈가의 '별'과 미륵을 향해가는 '배'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마음의 '길'이자 '사랑을 약속하는 땅'이라고 읊조린다. <문학동네, 4천5백원>

▲누가 나뉠을 어리석다 하는가=사치와 낭비, 방종과 퇴폐에 탐닉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피우는 자기 성찰 에세이. 인천방송 논평위원인 노계원씨가 10년간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집필했던 1천여편의 시사 칼럼 가운데 현시점에서 진실하고 시의성 있는 1백여 편을 묶었다. 이기적 탐욕 소멸과 이타적 보시의 중생제도 정신인 원효스님의 대승사상이 아니라 조도종의 지교가 돼야 한다는 칼럼이 새로이 다가온다. <중앙미디어북스, 7천원>

▲명상체험여행=명상을 통해 깨달음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 현실사회에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명상 길라잡이>에 이은 상명대 박석교수의 두번째 책.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면의 명상 수행과 정치, 경제, 환경과 신과학, 문화예술 등 폭넓은 지적수련 및 사회적 실천을 조화시켜가는 우리 시대의 '지적, 도덕적 명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모색, 8천5백원>

▲자연의 경계=환경보호운동가 애쉬워드가 경제학과 생태학 사이의 상호연관관계를 설명한 책으로 두 학문분야를 통합해 앞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이 살아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학과 생태학이 화합하지 않으면 지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동운교수(부산 수산대)가 번역. <비봉출판사 1만2천원>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첫번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나왔다

20세기 서구사상계에 불교사상의 정수를 단비처럼 뿌렸던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 그는 전환의 물결을 타고 있는 최근의 서구 사상사의 기초를 마련한 지성으로 대표된다. 특히 20세기 고전으로 평가받는 그의 대표작들에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 있다. 20세기를 연 보르헤스의 사상적 모태가 불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의 첫번째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서구 지성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 냈는가와, 그들의 인식전환에 불교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이다.

이 책은 특히 보르헤스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화' 시켰

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

'20세기의 창조자' '환상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 보르헤스에게 따라 붙는 이런 수식어들은 20세기에 끼친 그의 영향을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변해 준다. 보르헤스는 1976년 <불교강의>를 저술한 다음 이듬해인 1977년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직접 강연하기도 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불교와 힌두교 철학을 접하면서 외부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환연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진정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적 사실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상'이란 숨겨진 이면을 적시할 수 있는 상상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인 '색즉시공'의 문학



◇번역 김준연씨



년 1월(61호)부터 11월(102호)까지 연재했던 보르헤스의 저작 <불교강의>를 묶었다. 여기에는 '불교의 우주관' '대승불교' '중국불교' '선불교' '탄트라불교' 등을 서구의 사상과 대조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있어 불교에 대한 보르헤스의 깊이가 어느정도인지 느낄 수 있다.

번역자 김준연(한국의국어대 강사)씨의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보르헤스와 불교' 등 4권의 글도 함께 실려 있다. 5천5백원.

한명우 기자

법화행자의 초상 지일스님 편역

고려 요원스님의 법화 영험 설화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면서도 부처님을 모함하고 살해하려 한 인물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또한 구제받아 성불할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 고승 요원(了圓)스님의 <법화영험전>을 번역한 것으로 기이하면서도 신심을 돋울 수 있는 설화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성격이 비슷한 내용을 '법화왕기' 그 속한 곳에 '제바달삼이 감응하시니'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제목을 붙였다. 책속에 나오는 법화행자들의 신앙고백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종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게 한다. <불교시대사, 6천5백원>

이것 이것 라즈니쉬 지음

선문답 읽노라면 마음은 평화

"달 밝은 산마루에 두꺼비 울는데 활짝 깨달아 마음 밝혔네. 옛 노래집의 시인한 송바람도 이것과는 견줄 수 없네" 중국 마조(馬祖)선사는 선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조의 법제자 귀종(歸宗)에게 한 승려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면 믿겠는가"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라즈니쉬는 그대가 부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옛 선사들의 선문답을 통해 선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휴식을 준다. 류인장 옮김. <성하출판, 9천원>

석가의 본심 오카와 류호 지음

어떻게 자신의 자각을 높일 것인가

"깨달음이란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자신의 자각을 높여갈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또 세계의 비밀을 알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자 오카와 류호는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는 '안다'는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행복과 크나큰 에너지를 낳게 해준다고 말한다. 이 것이 바로 부처님 사상의 본질임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구성은 석가의 출가에서부터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팔정도의 발견, 육바라밀다의 사상, 공사상, 연기법 등 석가사상의 정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번역가 강영숙씨가 옮겼다. <출판시대, 1만원>

"한국은 이미 불교민속 영향권"



편무영교수 '한국불교 민속론' 펴내
암자의 기원·시왕신앙 등 분석 '독특'

한국불교민속론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이 책은 1·2장에서는 한국불교민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했으며, 3·4장에서는 한국불교민속의 전승과 매개인 '암자'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5·6장에서는 무속과 불교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살폈다.

이중 '암자'의 생성과 발전과정은 분석이 독특하다. 저자는 암자의 발생원인을 떠돌이 행자와 약수터에서 찾았다. 외지에서 온 행자가 약수터에 암자를 세운다는 것은 곧 마을 사람들과의 타협이자 전래민속과의 융합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무불융합론을 전개하면서 무속과 불교가 양자간의 입장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였는지를 시왕신앙(十王信仰)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목도 흥미롭다.

시왕신앙은 극락이나 지옥이나 하는 양자택일의 저승심판을 주지 않고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무속에서는 오히려 전래의 이승관과 저승관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저자는 시왕신앙의 극락과 지옥은 한국인 전래의 이승과 저승을 안으로 스며들었으며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보았다. <우>

한계주씨 '전화여행' - 이명숙씨 '종착역은...'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수필집 두권

한계주(한국수필문학 진흥회 이사)씨가 펴낸 <전화여행>(세손 판)은 뇌출혈로 9년의 세월을 한쪽 몸을 쓰지 못한 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모은 수필집. 이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살아 있다는 것이 고마워 밤새 잠을 설쳤다는 생각은 다 물어버렸다. 그리고 병상의 남편에게 매일 것은 인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느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누구에게 빚을 졌다거나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한씨는 "내게 화두를 던져 글을 쓰게 하고 기꺼이 그 글의 모델이 되어준 사람, 번뇌가 바로 '보리(菩提)'임을 일깨워 준 남편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말한다.

농촌출신 이명숙씨가 펴낸 <종착역은 어디십니까>(연꽃마을 판)는 추악하고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종착지를 불법의 진리로 귀결시킬 때 우리의 삶이, 사회가 향기로운 수 있다는 메아리를 전한다. 자신의 신행수기와 함께 절 생활에서,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숨김없이 담고 있는, 흠뻑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수필집이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환속의 불법수행	한대불교연구소	여시아문
2	생환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 립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공경경	윤 문 순	신 우 당
5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운 수	민 족 사
6	불교인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7	가슴을 전하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8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만자	세훈출판사
9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행미술학회	반출판사
10	사십이장경 강의	법 성	큰 수 례

구입문의: (02)737-0695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寺)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刹門),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86 /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동행출판**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